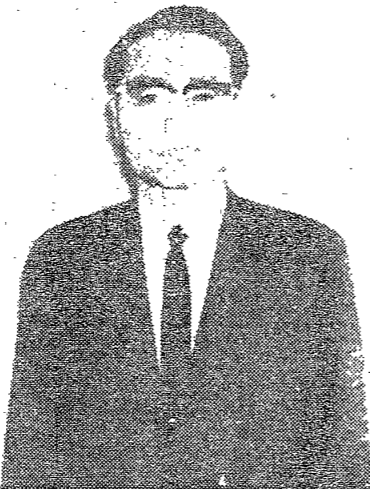


새하의「카리큘럼」

「自爲主로 철저한 改編을 促한다」

새하의「카리큘럼」은 1968년 10월 11일 신화일보에 실린 기사이다. 이 기사는 새하가 자신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정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새하가 '自爲主로 徹底的한 改編을 促한다'라고 밝힌 것은, 기존의 커리큘럼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혹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李昌 培 教育

英美代表詩 57편 解説

詩의 初歩者에게도 親近感을 與하고 韓國詩 英譯도 繼續하고 있고

이 기사는 57편의 영국과 미국 대표 시를 소개하고, 그 시의 배경, 주제, 그리고 시적 기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 시에 대한 영문 번역도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現時 大學의 座標



이 기사는 현재의 대학이 처한 위치와 방향을 논하고 있다. 대학이 단순히 지식 전달의 장소가 아니라,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수의 역할 변화에 대해 논하며, 대학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高」한 「프」로 「적」인 「인」 積極支援 하도록

이 기사는 '高'한 '프'로 '적'인 '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어떤 주제나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研究·教授에 評價와 支援을 公開講座 設置 原講 趙철지

이 기사는 연구와 교수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대해 공개 강연을 개최할 계획임을 알리고 있다. 강연자로는 趙철지(Choo Cheol-ji)가 나선다. 이 강연은 학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연구자와 교수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大學發展을 위한 紙上 檢閱인

이 기사는 대학의 발전을 위한 '紙上 檢閱'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또한, '有機的 協助로 行政府은 再教育 시키도록'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어, 대학과 정부 간의 협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教職員間「對話의 場」필요

이 기사는 교직원 간의 '對話의 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장소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佛敎眞理教育에 實用語로

이 기사는 불교의 진리 교육을 실용적인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는 주제를 다룬다. 불교의 교리를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대중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佛敎精神에 對인들게

이 기사는 불교 정신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소개하며,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賞 賞 賞

- 이 섹션에는 여러 가지 수상 내역이 나열되어 있다. 각 수상자의 이름, 수상 사유, 그리고 수상 기관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賞 賞 賞

- 이 섹션에는 또 다른 수상 내역이 나열되어 있다. 수상자 정보와 수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賞 賞 賞

- 이 섹션에는 마지막으로 수상 내역이 나열되어 있다. 수상자 정보와 수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賞 賞 賞

- 이 섹션에는 또 다른 수상 내역이 나열되어 있다. 수상자 정보와 수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賞 賞 賞

- 이 섹션에는 마지막으로 수상 내역이 나열되어 있다. 수상자 정보와 수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賞 賞 賞

- 이 섹션에는 또 다른 수상 내역이 나열되어 있다. 수상자 정보와 수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現代詩 (Modern Poetry) advertisement. Includes the title '第18輯' and a list of poets and their works. At the bottom, it says '現代詩同人會刊'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伊太利風 (Itali Wind) advertisement. Features the text '茶 音樂 經 洋 食' and 'SALON 名門'. It promotes a cafe or restaurant and provides the address and phone number.

학생 휴게실 안내 (Student Restroom Guide) advertisement.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 and facilities of the student restrooms. It mentions '단풍에 번지는 初秋의 陽光이 다정한 季節입니다' and lists the address and phone number.

콘택트렌즈 (Contact Lenses) advertisement. Promotes 'HANICON 렌즈' and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and its products. It includes the address and phone number.

大學放送의 現況

放送室의 現況

大學放送의 活用

産大서 技術支援을 運用할 수 있는 능력충분

【서울 1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 서울대학교 방송국은 지난 10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첫 방송을 실시했다. 이 방송은 '대학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대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방송은 총 4시간 30분으로, '대학의 오늘'과 '대학의 내일'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대학의 오늘'에서는 대학의 역사와 현재의 교육 현황을 소개했으며, '대학의 내일'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 방송을 통해 대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방송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도 엿볼 수 있다.

現況과 展望

대학 방송은 단순히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학의 이미지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사회와의 교류를 증진시키려 할 것이다.



이그린이 본교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송무림사곡'에서

F M 放送認可

【서울 1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 서울대학교 방송국은 10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첫 방송을 실시했다. 이 방송은 '대학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대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 방송을 통해 대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방송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도 엿볼 수 있다.

大學의 봉사기관

대학은 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 활동을 통해 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構內서 비스業體

대학 내에서의 비스(서비스) 산업체는 학생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체는 학생들의 학습 생활을 지원하고, 대학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雪獄의 教訓

【서울 1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 서울대학교 방송국은 10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첫 방송을 실시했다. 이 방송은 '대학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대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東大生 최초발견 구조 작업

【서울 1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 서울대학교 방송국은 10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첫 방송을 실시했다. 이 방송은 '대학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대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池昌勳 등단

【서울 1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 서울대학교 방송국은 10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첫 방송을 실시했다. 이 방송은 '대학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대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晚獄

What we've got here is a failure to communicate.

COOL HAND LUKE

1968년 가이오시(가이오시)의 대작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출연: 스티븐 리 리, 로버트 바우어

제작: 워너 브라더스

우리에게末日은 없다

BONNIE AND CLYDE

정신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浮浪兒!
劣等意識의 絶望속에서 狂走하는 問題兒가
그리곤 社會에 挑戰을 던진다!

감독: 로버트 알트만

출연: 스티븐 리 리, 로버트 바우어

제작: 워너 브라더스

1955년 10월 13일 (木曜日)

東 大 新 聞

1955年10月13日 第3 種郵便物認可

(第105號)

